“종단발전에 더 매진해 주시길”

전 종정 법전대종사, 인사차 방문한 총무원장 등 집행부에 당부

“새로 오신 종정 스님을 잘 모시고 종단 발전을 위해 더욱 매진해 주길 바란다.” 최근 임기를 마친 조계종 제12대 종정 도림 법전대종사가 총무원장 자승스님을 비롯한 종단 집행부의 예방을 받고 승가화합을 강조하며 이같이 당부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을 비롯한 종단 주요 소임자 스님들은 지난 3일 해인총림 해인사를 방문해 도림 법전대종사를 예방했다. 이번 하례는 제11, 12대 종정을 역임하며 사부대중에게 많은 가르침을 내린 법전대종사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법전대종사는 이 자리에서 “그동안 총무원에서 많은 노력을 해왔다”고 치하하고 “종단이나 총무원장 스님에게 큰 도움을 줘야 했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아 늘 미안한 마음이 있다”며 아쉬움을 전했다. 이어 “앞으로 새로 추대된 종정 스님을 모시고 화합해 열심히 종무에 임해 달라”며 당부의 말도 아끼지 않았다.

이에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종정예하가 취임한 지난 10년간 종단은 많은 발전을 했다”면서 “특히 종정예하가 늘 강조한 화합을 바탕으로 종단이 안정 속에서 발전한 것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화답했다.

교육원장 현응스님은 “앞으로도 종단을 지켜봐주시고 잘 이끌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획실장 정만스님도 “그동안 종단을 위해 큰스님께서 주신 가르침을 잊지 않고 추후에도 항상 마음의 이정표로 삼아 종단을 위하는 일원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중앙종회의장 보선스님과 포교원장 지원스님도 대종사의 건강을 기원하며 감사의 마음을 표했다.

이날 하례에는 눈보라가 휘날리는 궂은 날씨에도 총무원장 자승스님을 비롯해 중앙종회의장 보선스님, 교육원장 현응스님, 포교원장 지원스님, 총무원 기획실장 정만스님, 재무부장 도문스님, 문화부장 진명스님, 포교원 포교부장 송묵스님, 포교연구실장 법상스님, 중앙종회 사무처장 경우스님, 호계원 사무처장 태성스님, 서울 국제선센터 주지 법정스님, 불교신문사장 수불스님, 종책특보단장 원담스님 등 종단 주요 소임자들이 대거 참석해 퇴임한 법전대종사에게 삼배를 올리며 예를 표했다. 참석자들은 하례에 이어 해인사 주지 선각스님과도 차담을 나누며 그 동안의 노고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했다. 해인사=허정철 기자

해인사에 주석하고 있는 전 종정 도림 법전대종사(왼쪽)는 지난 3일 총무원장 자승스님 등 종단 집행부의 예방을 받고 새 종정 스님을 모시고 종단발전을 위해 더욱 더 매진해달라고 당부했다. 신재호 기자 air501@ibulgyo.com

“연등회 문화재지정 노력에 감사”

총무원장 자승스님, 성보보존委 무형분과 격려

“우여곡절을 겪으며 좋은 결과를 만들어 주셔서 성보보존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린다. 연등회가 전통문화의 맥을 이어오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이 성보보존위원회 무형분과 위원들의 예방을 받고 연등회 중요무형문화재 지정을 위해 노력한 노고를 치하했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지난 2일 조계종 어산작법학교장 인묵스님, 임돈희 동국대 교수, 김용덕 한양대 교수, 정형호 중앙대 교수, 임덕수 한국전통문화연수원장, 구미래 동국대 강사 등 성보보존위원회 위원들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발우공양, 다비문화, 탑돌이 등 불교 무형유산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인묵스님은 “연등회 무형문화재 지정을 계기로 앞으로 종단에서도 무형유산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며 “성보위원들도 앞장서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총무원 문화부장 진명스님도 “그동안 건축, 동산문화재 중심에서 벗어나 문화부도 불교 무형유산을 목록화해서 분야별로 연구, 조사를 실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밖에도 임돈희 교수는 국립민속박물관과 연계한 연구 조사 방안을 제안했으며, 김용덕 교수는 불교민속학회의 활동에 대해 소개하며 무형유산에 대한 관심을 당부했다.

엄태규 기자 che11@ibulgyo.com

경향닷컴, 조계종 비하 패러디 ‘빈축’

민간인사찰 파문 관련 ‘쥐계종 不法寺 民間人 寺刹’ 표기 등 불교폄훼 버젓이…

최근 ‘민간인 사찰’ 파문과 관련해 조계종을 비하하는 패러디물이 ‘경향닷컴’ 인터넷 기사로 올라와 물의를 빚고 있다. 패러디 포스터에는 ‘대한불교 쥐계종 不法寺(불법사) 民間人(민간인) 寺刹(사찰)’이라는 문구를 비롯해 불교를 폄훼하는 내용이 수두룩하다.

경향신문에서 운영하는 경향닷컴은 지난 2일 인터넷 커뮤니티 ‘대한민국 자식연합’이 공개한 ‘민간인 사찰 불법사 템플스테이’ 포스터를 기사와 함께 실었다. 포스터 속에 ‘월산’이란 이름은 이명박 대통령의 일본식 이름인 츠키야마 아키히로(月山明博)에서 따왔다.

패러디물은 마음의 소리까지 듣는 ‘도청명상수련’, 흰쌀밥에 날계란과 긴장을 통해 경험하는 ‘월산큰스님의 바루 공양’, 자신의 내면을 성찰하는 ‘다양한 불법과 미행’ 등의 내용으로 템플스테이를 원색적으로 비하했다. 욕설을 연상하게 하는 ‘국보 제1818호 민간인 사찰 불법사’라는 문구도 들어가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경주 불국사 조실을 지낸 ‘월산스님’과 이명박 대통령의 일본식 이름 ‘월산’이 묘하게 맞물리면서 불교계 어른을 깎아내리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 원본 사진을 도용해 스님의 얼굴 대신 대통령의 모습을 합성한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 포스터를 접한 불교계는 즉각 엄정 대응해야 한다는 뜻을 피력했다. 사회국장 묘장스님은 “패러디 차원을 넘어 한심한 수준”이라며 “경향신문은 단체에 대한 아무 검증 없이 무작정 기사를 올려 불교계를 폄훼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앙종회의원 종민스님은 “큰스님의 법명을 왜 사용했는지 이해도 안 되지만 ‘템플스테이’의 본질마저 흐리고 있다”며 “불국사 차원에서도 추이를 지켜보고 앞으로의 대응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꿈을이루는사람들 대표이사 진오스님은 “포스터를 제작한 단체의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는 의견을, 아름다운동행 사무총장 혜일스님은 “정론지로 알려진 신문이 편파적인 내용을 담은 포스터를 실었으므로 불교계에 공식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계종 비하 패러디물.

홍다영 기자 hong12@ibulgyo.com

문태조 詩心

겨울 사랑

고정희

그 한 번의 따뜻한 감촉
단 한 번의 묵묵한 이별이
몇 번의 겨울을 버티게 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벽이 허물어지고
활짝활짝 문 열리던 밤의 모닥불 사이로
마음과 마음을 헤집고
푸르게 범람하던 치자꽃 향기,
소백산 한쪽을 들어 올린 포옹,
혈관 속을 서서히 운행하던 별,
그 한 번의 그윽한 기쁨
단 한 번의 이윽한 진실이
내 일생을 버티게 할지도 모릅니다

단 한 번의 뚜렷하고 불룩하게 쑥 드러나는 사건으로 인해 그 사건 이후는 큰 변화가 있게 됩니다. 그 한 번의 사랑은 “소백산 한쪽을 들어 올린 포옹”에 견주어지고 “혈관 속을 서서히 운행하던 별”에 비견될 정도로 우리의 마음을 찬란하게 하고, 화려하게 하며, 달뜨게 하는 것입니다. 그 아늑하고 깊고 은근하고 간절한 사랑의 힘은 몇 번의 겨울을 버티게 하고, 한 사람의 일생을 버티게 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이 시를 읽으면서 폴 베를렌이 쓴 시 ‘로지타에게’의 시구를 떠올려봅니다. “사랑, 이것이야말로 유일한 아름다움/ 태양이 떠오를 땐 푸른 하늘도/ 태양이 없다면 온통 까맣게 된다.// 새들도 사랑해야 된다고 노래할 뿐/ 나머지 노래는 알지도 못한다.” 따뜻하고 묵묵하고 그윽한 사랑의 감정을 사용할 일입니다. 시인

동국대 개교 이래 최대 국고 200억원 지원

산학협력 명문사학 발판 마련

동국대(총장 김희옥)가 개교 이래 수주한 국고지원 사업 가운데 최대 규모인 200억 원을 지원받게 되는 등 국내 산학협력을 선도할 명문사학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3월28일 “산학협력선도대학 사업 지원대학 심사를 마친 결과 동국대를 비롯해 성균관대, 한양대 등 51개 대학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매년 20~40억 원이 지원되는 ‘현장 밀착형’ 선도대학으로 선정된 동국대는 사업시행 결과에 따라 앞으로 최대 200억 원을 지원받게 될 전망이다. 동국대가 지원한 분야는 문학과 연극, 영화 등 문화콘텐츠와 정보통신 분야를 결합한 ‘도시형 첨단융합산업’이다.

특히 서울과 일산캠퍼스를 활용해 서울 충무로에서 일산까지 지하철 3호선을 중심으로 연결하는 ‘충무로 컬쳐 밸리(Culture Valley)’ 육성사업으로 확산시킬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산학협력을 중점적으로 담당할 교원을 확충하고 기업맞춤형 인재를 집중 양성하기로 했다. 또 ‘예술-공학-경영’을 연계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다양한 기업연계 교육제도를 확립해 나갈 방침이다.

동국대 관계자는 “그동안 동국대가 산학협력 지원하고 육성하는데 힘을 쏟은 결과”라며 “앞으로 현장밀착형 교육 강화를 통한 우수인재 양성은 물론, 차세대 신성장동력 산업인 IT분야와 융합형 문화콘텐츠 산업 육성을 선도하게 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허정철 기자 hjc@ibulgyo.com

慧菴大宗師 문도회

정 기 회 의

귀의 삼보하옵고

의 하

하

▮ 아 래 ▮

●일 시 _ 불기2556년(2012)년 4월 12일(목요일, 음력 3월 22일) 오후 2시

●장 소 _ 해인사 원당암 ☎ (055)932-7308

불기2556년 4월

慧菴大宗師門徒會

회 장 성 법 합 장